

“미주 한인, 미국 부흥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2의 청교도”



청교도 신앙회복 및 2020년 선거를 위한 미 전국 각 지역별 연합 기도대회' 설명회를 마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 기념 '청교도 신앙회복 및 2020년 선거를 위한 미 전국 각 지역별 연합 기도대회' 발족

“2020년은 청교도가 미국에 이주한 지 400주년인 되는 해입니다. 성경적 신앙과 청교도적 가치 위에 세워진 미국의 영적 부흥과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하여 미국 전역의 한인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기념해 '청교도 신앙회복과 2020년 선

거를 위한 미 전국 각 지역별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시카고, 달라스, 시애틀, 애들란타, 휴스턴, 필라델피아, 하와이, 오레곤 포틀랜드, 보스턴, 피닉스, 메릴랜드 등 미 전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지난 13일, 미국기독교총연합회

전국기도연대 한기홍 목사, 자마 김준근 교수, 강순영 목사, 미주 성시화운동 송정명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등은 JJ 그랜드 호텔에서 미국 주요 도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합 기도대회(대회장 한기홍 목사)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전 미주 한인교회의 동참과 협력을 요청했다.
 미국 주요 도시 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인목사회를 중심으로 개

최될 연합 기도회는 △청교도 미국 이주 400 주년을 맞아 미국에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미주 한인 기독교인들이 청교도 신앙과 정신을 배우게 하고, 제2의 청교도가 되도록 준비한다 △미국을 하나님과 성경으로 되돌리려는 지도자들이 오는 11월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미국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 △영적/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자유/복음 통일을 위해 기

도한다 등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자마 강순영 목사 부부가 오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 전국 투어를 통해 각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종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 회장 김경일 목사 著)에 대한 책을 보급하며 미 전역 연합 기도회를 위해 각 지역 한인교회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북아일랜드, 13일부터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발효

북아일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13일부터 발효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동성커플도 혼인 신고가 가능하고, 이미 결혼한 이들은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민결합으로 살고 있는 이들 결혼으로 변경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작년 7월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의 낙

태 및 동성결혼에 관한 법류이 인권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북아일랜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아일랜드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민결합의 변경 및 동성결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3월 북아일랜드의

회 선거에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이 1위,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이 2위를 각각 차지했지만, 동성결혼 인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2년 반이 넘도록 공동정권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아일랜드의 개신교 인구는 가톨릭 인구와 비슷하다.
 강혜진 기자



남자동성애자 커플.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천막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날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라우팅 넘버 : 122043958
 어카운 넘버 : 06209456
 센터: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필터: 1547 S. Gramercy place., LA, CA 90019
 Tel: (213)364-7289, (213)605-1983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20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한국어 강의

I-20 발행

ATS, ABHE 정회원

연방정부 재정지원 (유자격자)
 재향군인 재정지원
 각종 장학금 혜택

미국 군종
 군목 지원자격

온캠퍼스/온라인 (캔버스)
 현장방문교육

| 학위 과정 |

- B.Th. | 신학석사
- M.Div. | 교역학석사
- MAICS | 선교학석사
- MACCP | 크리스천상담심리석사
- Ph.D. in Contextual Studies | 선교학철학박사

모집마감 | 2020년 1월 24일

지원방법 | 온캠퍼스 학생 - www.ptsa.edu에서 행정서식->입학관련 패키지(또는 bit.ly/ptsacamp) | 온라인 학생 - bit.ly/ptsa20s

입학문의 ☎ 1.562.926.1023, ext. 303 ✉ kmkoo@ptsa.edu 🌐 www.ptsa.edu
 📍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LIFORNIA 90670

플러신학교, 퇴학당한 동성결혼 목회자 부부에게 200만 불 소송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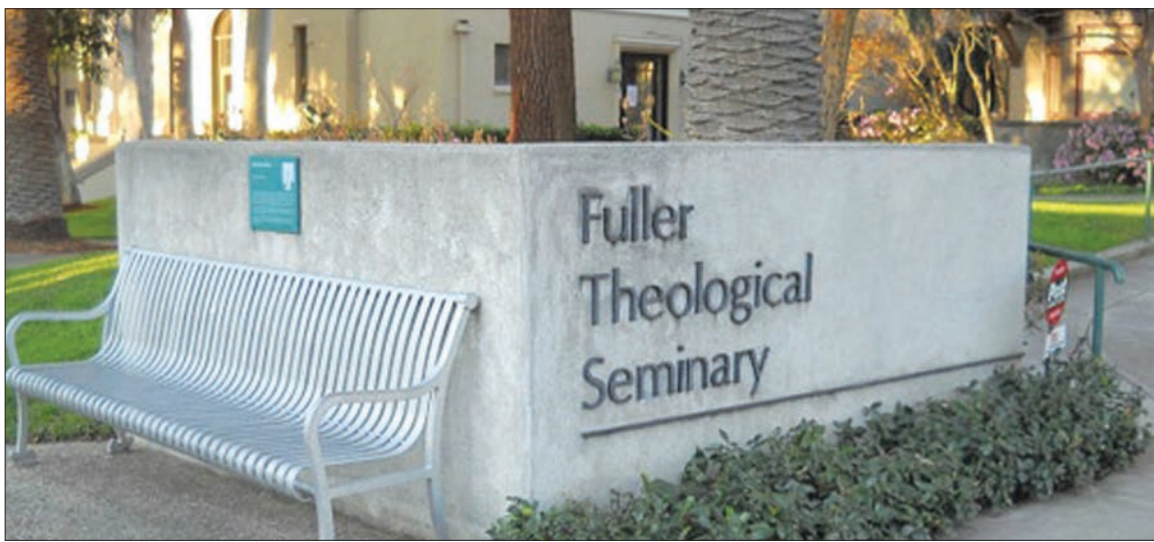
동성결혼으로 인해 플러신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차별'이라며 200만 불(23억 2천342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전역의 종교 사학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 받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동성결혼자인 목회자 네이션 브리튼(Nathan Brittsan)은 지난 8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동성결혼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퇴학당한 조안나 맥슨(Joanna Maxon)이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에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로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맥슨은 지난 2019년 10월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한 이후 12월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동성결혼으로 인해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퇴학당한 학생에 의해 제기된 첫 번째 소송이었다. 브리튼도 이 소송에 동참한 것이다.

소송 대리인은 지난 8일 브리튼의 소장을 추가하면서 "이것은 동성결혼을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졸업하지 못하고 퇴학당한 두 학생



미국 플러신학교.

의 민권 소송"이라고 말했다.

맥슨과 브리튼은 자신들이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옹호하는 이 학교에 입학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브리튼은 지난 2017년 9월 플러신학교의 학칙에 포함된 성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후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맥슨도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2019년 10월 퇴학당했다.

종교자유 소송 전문 비영리 공익로펌인 벤키에서 플러신학교의 소

송 대리인을 맡아 법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벤키 소속 대니얼 블룸버그 변호사는 기독교방송 CBN에 "이 소송은 종교사학에 위협하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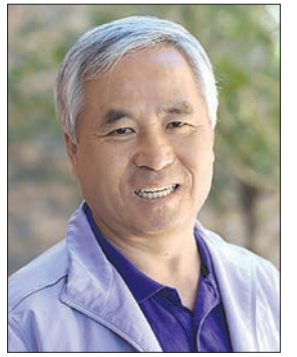
하지만 맥슨은 첫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자신을 퇴학시킨 플러신학교가 미국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미국 내 교육계에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Title IX'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맥슨의 소송 대리인은 "플러가

학생들에 대한 자신들의 전통적 기준을 유지하고 싶다면, 연방 정부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72년에 제정된 Title IX는 성별로 인해 교육이나 재정 보조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성은 원래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일부 좌파 단체와 정치인들은 이 성을 성적 지향성과 젠더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까지 확대해 해석하려 시도하고 있다.

제17대 한기총 미주 총회 정기총회, 오는 25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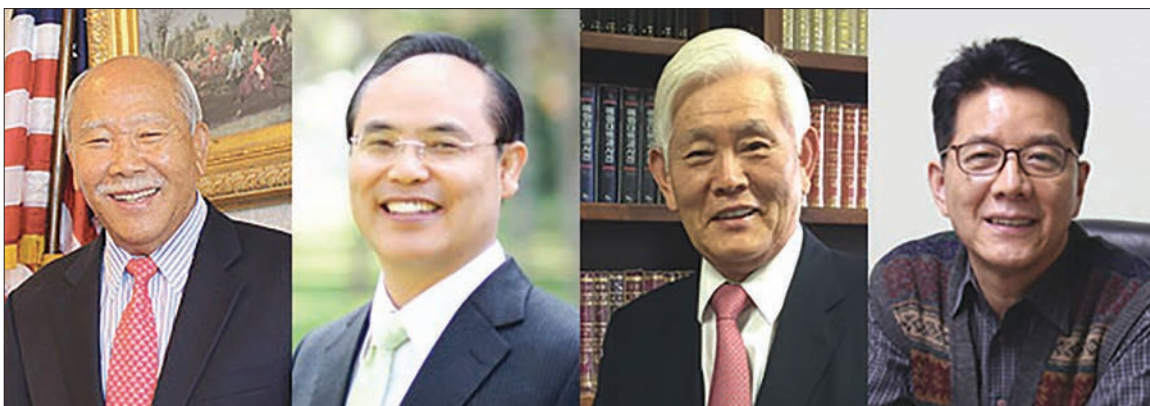
심평중 목사

한기총 미주 총회는 오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주님의 사랑교회(담임 서사라 목사)에서 제 17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한편 제 17대 한기총 미주 총회 대표회장으로는 심평중 목사(오클라호마, 로턴장로교회)가 내정됐다.

■ 제17대 한기총 미주 총회 정기총회
일시: 1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장소: 주님의 사랑교회
주소: 216 E. 31st St, L.A. CA 90011
문의: 류당열 목사 213-505-1947

[1면 "미주 한인, 미국 부흥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2의 청교도" 이어]



좌부터 김춘근 교수, 한기총 목사, 송정명 목사, 신승훈 목사

김춘근 교수는 "하나님과 성경,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신앙에서 멀어져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며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맞아 좀 더 구체적으로 청교도의 신앙을 돌아보고, 미주 한인들이 제

2의 청교도 사명을 감당하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 목사는 "117년 전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한인들은 102명으로, 400년 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숫자

와 같다. 미국에 도착한 한인들은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며 미국과 고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 왔다"며 "미주 한인교회가 제2의 청교도 사명을 가지고 말씀에서 벗어난 미국을 회복시킬 것이라 믿는다.

미국의 부흥을 위해 미 전역에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미국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송정명 목사는 "나라의 지도자를 결정하는 일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며 "한인교회 성도들이 유권자 등록을 비롯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인지, 각 정당의 공약이 성경적인지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투표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이어 "캘리포니아는 성경에 반하는 법안들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말로 포장돼,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교계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승훈 목사는 "2020년은 6.25 전

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때, 어디인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미국의 수만 명이 죽거나 부상 당하면서까지 피 흘려 싸우며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켰다"며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 때에,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합 기도대회는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김남수 목사, 김춘근 교수를 고문으로, 진유철 목사, 이성철 목사, 호성기 목사, 이재호 목사, 권 준 목사, 김용훈 목사를 공동대회장으로, 강순영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주회는 미주 성시화운동, 각 도시 교협과 목사회회, 주관은 JAMA와 미기총 전국 기도연대가 맡게 된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2년의 노하우 1-20 자격신청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신년맞이
LA 백송교회
전용대목사 초청 찬양 간증 부흥회
 2020년 1월 23일(목)~24일(금)
 저녁 7시 30분
 3251 W. 6th St, Suite B1., Los Angeles, CA 90020
 LA 백송교회
 문의 213 674 7966
 213 245 6616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미주성결교회 **LA백송교회**
 한국 최초 CCM 가수 전용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

제17주년 미주 한인 날, 트럼프 美 대통령 미주 한인 공헌 높이 평가

“한국과 더불어 지속적인 자유, 미래 향한 번영 위해 힘 모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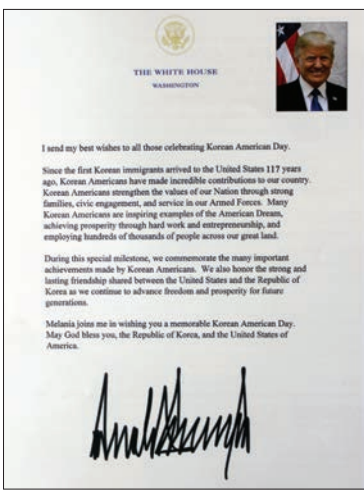
미주 한인 이민 제117주년 및 미주 한인 날 제17주년 기념식 3부 순서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지역 사회 단체장과 교민들

기여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이제 미주 한인들은 2,3세대들로 하여금 타인종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에 앞장서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내 한인들의 위상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한기홍 목사는 또 “미주 한인교회는 종교 단체의 성격을 넘어 한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교회가 한인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며 “미주 한인교회가 미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치기 위해 하나님 중심, 가정 중심, 교회 중심, 사회 중심의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강조했다.

대회를 준비한 미주 한인재단 LA 이병만 회장은 “올해 미주 한인 날은 한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다민족과 미국 이웃들 모두가 함께 하는 만남과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며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베트남, 방글라데시, 히스패닉 등 다민족 지도자들과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주 한인 날은 한인들이 하와이에 처음 도착한 1903년 1월 13일을 기념해 2005년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미주 한인 날 제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념일로 정해졌다. 김동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축하 서한

미주 한인 이민 제117주년 및 미주 한인 날 제17주년 기념식이 지난 12일,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감사예배로 시작한 기념식은 LA 한인 사회 단체장들과 캘리포니아 소수민족 대표들과의 화합과 축복의 시간, 축하 공연, 환영 만찬 등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는 주미 주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정치인, 타인종 지도자들이 참석해 미주 한인 날을 축하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인 날을 축하하며, 미국 내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한인들

의 역할과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축하 메시지에서 “117년 전 초기 한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온 이후부터 한인들은 미국에 큰 공헌을 해왔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모범을 보여줬다”며 “미국은 한국과 강한 유대와 우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유와 미래를 향한 번영을 위해 힘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미주 한인 날 축사를 보내온 문

재인 대통령은 “255만 미주 한인 동포들은 미국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과 미국 모두의 자랑’으로 뿌리내렸고, 자랑스러운 민간 외교관으로 한·미 양국의 우정을 이어줬다”며 “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미국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한인사회가 되자”(마 5:1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홍 목사는 “미주 한인들은 개혁정신과 한민족 특유의 성실성과 강인함으로 미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섬김의 리더십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전령자 될 것!”

제27대 남가주 장로성가단 김영균 단장 취임

남가주 장로성가단은 지난 9일, 2020년 신년 감사예배와 함께 단장이 취임식을 거행하고, 신임 단장인 김영균 장로의 취임을 축하했다.

27대 단장으로 취임한 김영균 장로는 “모든 증경 단장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 교회와 교파를 넘어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남가주 장로성가단이 되고자 한다”며 “성가단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차세대를 발굴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전진했던 바울처럼 부르심의 합당한 복음의 전령자들이 되자”며 취임사를 전했다.

이임사를 전한 김용식 장로는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단원들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취임하는 김영균 단장님의 뜨거운 열정과 훌륭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모든 임원들이 하나 되어 복음 전파를 위해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가주 장로성가단은 오는 5월 이태리 로마와 밀라노에서 2번의 연주회를 비롯, 한 해 공연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나성 영락교회 친교실에서 연습시간을 갖고 있다.

김영균 신임 단장은 “남가주 지역 교회 장로님으로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 사회 선교에 동참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남가주 지역 장로들의 가입을 권유했다.

한편 나성 영락교회 친교실에서 드린 신년 감사예배에서는 김병완 장로의 사회로 최종혁 장로가 기도했으며 이주철 사관(구세군나성교회)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출 15:1-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주철 사관은 “남가주 장로성가단의 찬양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록 하심, 구원하심을 찬양하길 바란다”며 “입술만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룩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남가주 장로 성가단 모든 단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년 남가주 장로성가단은 김영균 신임 단장과 함께 김병완 부단장, 김광배 총무, 이정신 서기, 권수학 회계, 한철수 부회계 등이 섬기게 된다. 김영균 신임 단장은 북미주한인CBMC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김영균 신임 단장(우)이 김용식 전임 단장(좌)으로부터 단기를 전달받았다.



남가주 장로성가단이 신년 감사예배 및 단장 이취임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1ST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OPEN HOUSE
January 23, 2020 @ 7pm


 (213) 487-5437
  www.e-nca.org
  info@e-nca.org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40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에 교회 동참을 바라며

필자의 교우 한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 매일 미전도 종족 하나씩 품고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라 말을 했다. 우리 교회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4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연합 기도회에 참여하여 매일 한 종족을 위해 합심기도를 하고 있다. 필자 교회는 창립 때부터 전 교우들이 최소한 1 종족(민족) 이상씩 입양하여 날마다 그 종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독려하고 있다. 교우들이 미전도종족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는 편인데도 이번에 시작한 연합 기도의 대상인 400 미전도 종족들의 이름은 처음 듣는 생소한 종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서 매일 한 종족씩 400일간 그 종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연합으로 기도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전도 종족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기도 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기다. 매일 기도시간을 두어 그 종족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구원에 대한 절실하신 마음을 닦아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전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에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종족의 이름을 입술로 선포한다. “로하족, 말리족, 타직인들, 위구르족, 안사리족, 아라인족, 바니아족, 힌두도비족, 자트족, 카푸족 등등...” 이렇게 종족을 부르면서 “사망의 주님! 이 종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전도자들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먼저 연합하여 이 종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족들. 한 나라에 수십 종족들이 뒤섞여 사는데 어찌 그 종족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 미전도 종족을 찾아내는 것이 옳은 선교전략인가 등을 필자는 수없이 갈등하며 의문을 둔 때가 있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무조건 그 종족들의 이름이라도 부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방법으로 응답하리라.”였다. 그렇게 필자는 연합 기도운동에 교회를 참여시켰다. 목회는 주님의 뜻을 온 교우가 함께 이루어 가도록 섬기고 안내하는 것이라 필자는 믿으며 교회 일을 한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 기도운동의 시작은 이렇다.

랄프 윈터 박사가 1973년부터 시작한 FMF(Frontier Mission Fellowship) 선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세계 기도 다이제스트(GPD) 운동이 있다. 미전도종족의 정보를 월간 기도 책자로 만들어 웹사이트와 책자로 보급하는 일이다. 이 단체와 조슈아 프로젝트가 연합하여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 기도운동 안내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다. 이에 미주에서 한인 교회들이 연합하여 세운 실크웨이브미션(SWM, 대표: 김진영 선교사)이 기도운동에 참여하면서 한글로 번역된 ‘4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책자를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종족 중 아직 복음화율이 1% 미만인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선정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이심”을 믿자. 교회들이 기도하는 종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자. 마치 그 옛날 조선땅을 위해 기도하던 저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교회들이 서로 힘을 모아 기도했던 그 종족이 지금 세계 선교 파송 민족이 되어 2,800명 선교사를 열방으로 파송한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자. 믿자.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 부르는 미전도 종족의 이름을 들으실 때 마찬가지로 역사하실 것을 이 대망의 새해에 굳건히 믿으며 연합 기도운동에 동참하자.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8) 몰입

몰입의 방법

우리는 하루에도 수 만 가지 생각을 떠올리며 삽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 촬영 연구소에 의하면 우리 뇌는 하루에 약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생각 중에 대부분은 쓸데없는 잡다한 생각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잡다한 생각에 무방비 상태로 사로 잡혀 버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 생각들이 집중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근대 행복학에서는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몰입을 말하는데 몰입은 집중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행복학에서 말하는 몰입은 집중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학에서 말하는 ‘몰입’은 약간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몰입을 영어로 표현하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즉, flow, engagement, 그리고 Hyper-focus 등입니다.

몰입의 첫 번째 의미는 영어 Engagement로 표현됩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 박사는 행복에 필요한 5가지 조건을 PERMA로 정리하였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P는 Positive attitude 즉 긍정적 마음 자세이지요. 둘째 E는 Engagement, 즉 몰입입니다. 셋째 R은 Relationship 즉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넷째 M은 Meaning of life 즉 삶의 의미입니다. 다섯째 A는 Accomplish-

ment 성취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 중에 몰입(Engagement)을 특히 강조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 말하는 ‘몰입’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상태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이나 활동에 온전히 집중된 상태를 말합니다.

몰입의 두 번째 의미는 영어 Flow로 설명합니다.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 심리학 교수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는 몰입을 강조하면서 flow를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몰입은 어떤 행위에 깊게 빠져 있어서 그 순간에 개인이 시간의 흐름과 자아를 잊게 되는 상태입니다. 어떤 활동에 고도로 관여하고 집중된 상태에서의 고도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입니다. 즉 집중된 한 가지 일에 완전히 흡수된 상태입니다. 이는 스키를 타고 하강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스키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최고조의 집중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설

명하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연속적 행동이 나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주나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행동의 집중이라는 의미로 flow를 사용합니다.

몰입의 세 번째 의미는 초 강력 집중을 의미하는 Hyper-focus로 설명됩니다. 이는 한 가지 일에 주의력을 전부 쏟아붓는 초고도의 집중 상태입니다. 생산성 연구를 통해서 세계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크리스 베일리는 “Hyper Focus”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몰입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Hyper focus는 집중할 가치가 있는 일들을 찾아 그 일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크리스 베일리는 Hyper-Focus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유익을 업무의 효율성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몰입’이 근래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몰입을 통해 삶의 능력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몰입은 행복의 관점에서, 또 능력의 관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어려운 시험준비나 운동경기에 단기간의 집중을 경험한 사람들은 몰입의 힘을 쉽게 이해합니다. 몰입을 통해 능률증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몰입은 능력의 증진은 물론 행복을 줍니다. 몰입감은 행복감입니다. 다음 호에는 몰입의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몰입감과 일의 능률을 보장하는 몰입의 Know How를 나누겠습니다.



남加州 한국 예비역기독교인회 신년 하례식 지난 11일 LA 한인타운 말씀새로운교회에서 신년 하례식 및 호국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교는 남加州한인목사회 회장 이정현 목사가 “3C 3P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2020 신년부흥성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찬 축복과 기적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사: 장경동 목사
1월 20일(월)~22일(수)
저녁 7:30



장경동 목사

대전 중문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있는 장경동 목사는, 전세계를 다니며 실패없이 백백한 강연일정과 바른 방송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복이란, 찾으면 보이는것’, ‘나를 팔아 천국을 사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등 무려 31권의 신앙서적들을 펴내는 등 집필활동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강사: 김호민 목사
1월 21일(화)~22일(수)
새벽 5:30



김호민 목사

권능침례교회 담임목사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호서대학교 대학원 Th.M(신학석사,신약전공) 호서대학교 대학원 Ph.D(철학박사,신약신학전공) 철학박사논문 제목 - 사도행전에 나타난 권능 모티프 행복나눔 전도축제 총괄총무



고규남 담임목사

동문교회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금) 새벽 5:30
(토) 새벽 6:30



“미주 한인 교회와 신학교 ‘선교’ 라는 공동 목표 붙들어야”

[인터뷰]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 이명철 기획 및 대외 협력처장

“미주 한인교회, 신학교, 각 선교 사역지의 위기는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교인 수 감소는 신학교 지원자들의 감소와 신학교에 대한 재정 축소로 이어집니다. 양질의 신학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신학교는 학생 수 감소와 재정 감소로 교회와 선교 사역지로 파송할 인재 양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교회와 신학교, 선교 사역지는 ‘선교’라는 목적을 붙들고 협력해야 위기를 넘어 부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과 기획 및 대외 협력처장인 이명철 목사를 만나 미주 한인 신학교 위기에 따른 해법과 미주장신대의 새해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1977년 9월 1일 나성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첫 수업을 시작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로 미주 지역에 세워진 한인 신학교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선교 지향적 학교로 자리매김 해온 미주장신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에서 복음주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 성서대학교협회의 ABHE 정회원 자격 취득에 이어 2018년에는 북미 신학대학원협의회 ATS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다.

-교회와 신학교의 위기 원인과 돌파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이것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 전통이 무시되고 모든 것이 상대화, 다원화되는 시대를 살아야 하고 있다. 진리의 복음이 가리어지면서 교회의 인적 자원 감소가 연쇄적으로 신학교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은 지 오래다. 교회의 출발점은 선교였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도태되는 이유는 존재의 이유와 사명인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곳저곳에서 위기라고 말하지만, 미주 한인 교회와 신학교가 ‘선교’라는 본질로 돌아가 선교적 영성과 선교 신학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도전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교회와 신학교는 ‘선교’라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기능과 역할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신학교육은 선교 현장을 끌어안고 고민하는 신학 교육이 되어야 한다. 수동적인 신학교육이 아니라 선교 현장, 목회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 맞는 신학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의 풍요 가운데 살고 있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산타페 스프링스에 본교를 두고 있다. 이상명 총장(좌)과 기획 및 대외 협력처장 이명철 목사

만 사람들은 인간 영원의 문제, 내면 정신의 풍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대신학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를 위해 500년 전 종교 개혁 당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학 커리큘럼을 개혁주의 신학을 근간으로 21세기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맞춰 현대에 맞는 신학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특정 사역자만 신학을 공부하던 시대를 벗어나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학교가 되어야 한다. 미주 장신은 신학교육 과정을 비롯해 소셜 워커 양성 과정, 비즈니스 선교와 같은 과정도 교육하게 된다.”

-신학교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미주장신대의 계획은 무엇인가?

“먼저 내적인 변화로 올해부터 캔버스(Canvas)라는 미국 유수의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캔버스는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일반 학생 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 또는 외국인 학생들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적 신학교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20년 내 미국 공립학교를 포함해서 50%의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제는 공간과 건물 개념의 학교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온라인 베이스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선교지에

게신 분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미국까지 올 수 없는 분들이 캔버스 시스템을 통해 학위 과정과 연장교육,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적으로는 선교 지향적 학사 운영을 위하여 기획처를 신설해 신학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선교사 및 목회자들을 연계해현장의 이론적 정립을 마련하게 된다. 교수와 학생들의 현장 방문을 통한 선교지 연동 교육으로 역동성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대외협력처를 통해 지역교회와 신학교가 연합하여 현장 중심의 목회자와 사역자를 신학교에서 양성하고, 해외 선교사 또는 목회자들과 연계해 온라인 교육을 통한 신학교의 학업적 성과를 돕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들과 선교 현장의 사역자들을 기다리는 신학교가 아니라, 찾아가는 신학교로 학교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후원회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교수만의 신학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학교가 되고자 한다.”

-미주 장신대가 추구하는 선교적 신학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날 신학교는 신학적 이론 제 공에만 제한됐던 이전의 교육 환경을 넘어 ‘목회 현장 혹은 선교지의 현장 상황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성도들의 신학적 요구 또한 담임 목회자의 신앙 노선으로 국한되지 않

고, 더 깊고 넓은 신학 이론과 정보로 이어지고 있다. 신학교는 세속화의 영향 가운데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적 영성을 붙들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신학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주장신대는 선교지, 신학교, 지역 교회가 연동해서 인력과 자원,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선교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신학교는 선교와 목회 현장의 다이나믹을 경험할 뿐 아니라 선교지의 고충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합한 신학 이론을 제시하게 된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복음 전파와 신학적 메시지 전달하려고 한다.”

-신학교와 지역교회와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미 일반 대학과 기업들은 학교의 이론과 기업의 현장이 협력하여 이론을 실험하는 현장과 현장에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학교가 이론으로 정립시키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미주장신대는 이론과 현장의 경험을 융합시키는 시스템의 구상 및 실현을 위해 기획 및 대외협력처를 신설했다. 기획처는 학교의 필요를 연구 조사하고 이를 외부 단체와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운영한다면, 대외 협력처는 올바른 신학적 바탕과 현장 경험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는 역할과 학교와 교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

게 된다. 더불어 기존 학교 내부 부서들과 힘을모아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도모하고, 목회지와 선교지의 신학적 필요를 채우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신학교와 지역교회 그리고 선교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미주장신대는 해외 한인 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다. 타교단 교회와 협력, 신학적 교류도 가능한가?

“교단 신학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복음의 지경을 넓히지 못한다면 본말이 뒤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장로교 교리라는 기초 위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은 과감히 수용하고 포용하는 신학교육이 필요한 시대다. 이를 위해 타교단 교회와의 협력과 신학적 교류 또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협소한 교리적인 문제에 신학 이론을 국한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그리고 인성과 신성을 함께 하신 것처럼 신학교도 학문과 더불어 경건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인 신학교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선교를 목표로 신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동욱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8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문화매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전문뉴스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시민권 취득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추방 재판
▶ 학생비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온전한 십일조의 의미와 기대

말라기 3:7-12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신앙사명으로 잘 보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자격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 식물(생명과일)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꾀임에 빠져 이성을 잃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로 인해 영적인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영이 되고만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식주를 위한 문제로 고민하고, 진액을 다해 애쓰고 수고해도 늘 허탈감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생애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생기공급을 보장받아서 영적으로 살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대접해 주실 것이라는 미신적인 경향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두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입니다. 모셔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 율타리 안에 살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식은 모두 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은 그들의 육신이 아닌 심령이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9:13-14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중략)...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하셨습니다.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에 그들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데 돌아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의 우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

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일조 하지 않고 헌물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영적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기를 다하는 사람치고 가난하게 사는 이도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는 이유와 변명이 많고 부담스럽게 여겨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섬기려는 기회마저도 가로막는 방해꾼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 해방되어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심을 따라 광야 40년간 방황하는 신앙연단 속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4이하에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중략)...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수13:33). 하나님의 조건으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8:23-24에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중략)...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열 한 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십일조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생활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신앙지도를 책임지는 사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열 한 지파가 제각기 나누어준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수고한 댓가는 하나님이 그들의 몫으로 책임지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어긋나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에서는 그들의 수고는 헛것이 되고 실패의 쓴잔을 마시도록 하여 그들의 믿음이 경험을 통하여 올바르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시도해 오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십일조를 드리지도 못할 형편이 되어지면 레위지파도 함께 배고플 수밖에 없도록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항상 그 믿음이 올바르게 가꾸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적이고, 복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조건에 목자도 동참할 수 있는 인연의 원리를 하나님이 교회에서 적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기 18:26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중략)...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십일조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사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제

사장직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들은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더 나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몫을 챙겨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십일조 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27:30-34에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 의 것이니...(중략)...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하셨습니다. 레위 족속의 몫을 위하여 모세의 율법이후에만 이스라엘에 십일조 제도가 필요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십일조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앞서 십일조의 원리를 깨닫고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23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중략)...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십일조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식적인 의무에서 박하, 회향,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과 인자한 선행, 믿음은 버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서 그저 율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십일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진 다음에 그분의 몫을 드려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의 몫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선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 백성 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얻어진 물질의 복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재료로 챙겨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십일조는 해야 하는데, 레위 지파의 몫으로 하는 십일조가 아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네가 살면서 얻어진 모든 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네 몫으로 챙겨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인정하는 표시로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와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 신자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십일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처지를 살펴 하나님의 조건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드리고 넘치는 복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온전한 십일조 생활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후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조건과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보장 가운데 믿음으로 영육간에 살리시는 은혜를 영원히 보장받는 참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평화통일과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

신년 새해 인사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 협의회 종교분과위원회에서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신년 조찬 기도회”를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0년 1월 18일(토) 오전 7시
- 장 소 : 가든스윗호텔 (213) 383-0000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문 의 : 종교분과 위원장 정요한 목사 (213) 422-9191

- 주 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3660 Wilshire Blvd. #407 Los Angeles, CA 90010
- 공동주최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한인장로회 | 미주성시화 | 미주기독교실업인회



구 에드워드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협의회 회장 구 에드워드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담임목사

HAPPY NEW YEAR
2020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HAPPY NEW YEAR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미주 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 신년하례회



LA 지방회, LA동지방회, 남서부 지방회 등 3개 지방회 교역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미주 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 신년하례회

미주 성결교회 남가주 교역자회(회장 안중기 목사)는 지난 12일, 시온교회(담임 최경환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갖고 2020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LA 지방회, LA동지방회, 남서부 지방회 등 3개 지방회 교역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신년 하례식

은 예배와 친교, 기도 시간으로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부회장 이상혁 목사가 인도했으며 남서부 지방회장 김신일 목사의 기도와 본회 직전회장 안신기 목사가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LA지방회장 한천영 목사가 연합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고

증경총회장 송중복 원로목사가 축도했다.

신년하례식에서는 김용배 미주성결교 총회장의 영상 인사를 시작으로 증경총회장 이상복 목사와 조종근 목사의 신년사를 전했다. 또 각 지방회와 미성대학교 총회본부에 속한 가족들이 나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인규 기자

“캘리포니아 아트 유니버시티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세요”

[인터뷰] CAU 정세광 총장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아트 유니버시티(California Arts University) 캠퍼스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 정세광 총장

직 디렉터, 자영업, 연주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용음악이란 자체가 쉽고 재미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전공이 다르고 음악적인 배경이 없어도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 학위 과정과 전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CAU의 학위 프로그램과 전공으로는 음악 석사(Master of Arts)를 비롯해 음악 박사(Doctor of Musical Arts)를 수여하고 있으며, 특별히 미국의 유수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 내 소수의 학교에서만 수여하는 음악 박사 학위인 DMA 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공으로는 피아노(재즈 피아노), 성악(보컬), 작곡, 관현악, 지휘, 드럼, 기타, 베이스, 음향 및 영상, 디지털 컴퓨터 음악이 있습니다.

- CAU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CAU는 2013년에 캘리포니아 교육부(BPPE) 인가와, 미 연방정부 교육부(USDE)로부터 일반대학교 대학원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습니다. 남가주에 위치한 유일한 한인 일반대학교 대학원 실용음악과이며 2019년 연방 학위 인증기관인 전미 기독교대학 및 학교 인준 협의회 트래스(TRACS)로부터 정회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프로그램인 I-20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CAU 졸업생들은 교수, 강사, 뮤

직 디렉터, 자영업, 연주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실용음악이란 자체가 쉽고 재미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전공이 다르고 음악적인 배경이 없어도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CAU는 UCLA, USC, UNT, UT, Berklee 등에서 공부한 우수한 교수와 강사진이 이중 언어로 강의하고 있으며, 레슨과 프로젝트, 개인 연습과 공부를 위해 연습실, 각종 악기실, 강의실, 도서실 등 캠퍼스를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악기 및 장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학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까?

“CAU는 타 대학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고 더불어 유학생 장학금을 비롯해 장애인 및 저소득 장학금, 시니어 장학금, 목회자 및 선교사 가족 장학금, 특별 음악재능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을 만큼 다양한 장학 제도가 마련돼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AU 입학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는 2월 10일(월)이 개강입니다. 저희 학교 웹사이트 www.cauniv.edu 또는 전화 213)700-7575. (714)222-1110로 할 수 있으며, 플러턴에 위치한 본교 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로 방문하셔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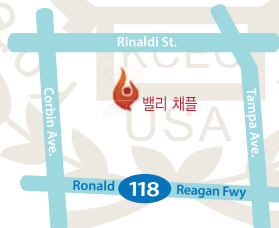
이인규 기자



제45대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이임회장 : 김영균 장로
취임회장 : 정도영 장로

- 일시 : 2020년 1월 26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 T.(818) 363-5887)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문의 : T.(213)761-5656, (213)321-2329



남가주 한인 장로협의회
Korea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 비만의 개선
-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환자 인지도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I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 749-2522

CAU 졸업생들은 교수, 강사, 뮤

CAU가 가진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정통 클래식 연주자 소프라노 비올렛 심 첫 디지털 싱글 CCM “소망가” 발표

‘사명’ 이권희 작곡가와 협력해 올해 음반 발매 예정



판페라기수 비올렛 심

정통 클래식 가수로 활동해온 실력과 소프라노 비올렛 심이 첫 디지털 싱글 “소망가”(Song of Hope)를 발표했다. 한국적 정서를 담은 CCM “소망가”는 크리스천을 비롯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녀의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곳이 천국이며 소망은 기도와 함께 꼭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CCM “소망가”는 <사명>,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통하여>, <부르심>, <내 삶의 이유라> 등 수많은 크리스천 애창곡을 작곡한 이권희 집사가 작곡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권희 집사는 “20년이 넘는 작곡 인생에서 가장 한국적이며 웅장한 사운드를 생각하며 만든 곡”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소망가”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올렛 심은 이권희 집사가 작곡한 찬양곡을 추가로 발표해 올해 중순에는 첫 음반을 발매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 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줄리어드 음대 다니엘 페로 교수에게 사사한 그녀는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에서 뛰어난 가창력

을 바탕으로 여성 소프라노가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고난도의 기교와 감성을 살리는 리릭 콜로라투라로 활동해왔다. 또한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리골레토 등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다수의 오페라에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이끈 바 있다. 이하는 일본일담.

첫 디지털 싱글 CCM “소망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망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의 신앙고백과도 같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으로 만드신 천국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제 신앙을 되돌아보게 됐고,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망가를 쓰게 됐습니다.”

정통 클래식에서 활동하시다 대중

적인 CCM을 발표하셨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가서 혼자 풍금을 치면서 음악을 접한 이후로 정말 순탄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일본, 이태리, 미국 보스턴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말 큰 어려움 없이 노래할 수 있었는데요. 문득 ‘나의 노래는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어린 시절의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을 CCM을 통해 폭넓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USC 공연장에서 피아니스트 신창용과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연주회 중반에 처음으로 CCM 소망가를 불렀습니다. 사실 제가 클래식 싱어라서 음이 낮은 CCM을 콘서트에서 부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클래식 콘서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반응일까 궁금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넌크리스천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많은데요. CCM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소망가”에서 한국적인 정서가 깊이 묻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악가로 일본, 이태리,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뮤지컬 기획과 연출을 접하고 관객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크로스오버 곡 창법을 익히고 준비하던 중에 CCM 작곡가 이권희 선생

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권희 선생님께서 소망가는 ‘자신의 작곡 인생에 있어 가장 한국적이며 웅장한 사운드를 생각하며 만들 곡’이라고 하셨을 만큼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 담긴 곡입니다.”

유명 CCM 작곡가 이권희 집사님이 작곡하셔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작곡가 이권희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명’을 비롯해 ‘사모곡’, 영화 ‘소명’의 OST로 유명한 ‘나를 통하여’, ‘내 삶의 이유라’ 등을 작곡하시면서 국내 CCM계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해오셨는데요. 성악가나 클래식 전공자들도 부를 수 있는 CCM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소망가’를 비롯해 몇 곡을 더 주시기로 하셔서 올해 중순에는 음반도 발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기관 위드 뮤직으로 선교도 진행하고 계시죠?

“위드 뮤직은 음악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공연 수익으로 고아원에 기부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시절 음악을 접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서 고양시 시내원과 진주 기독교 유아원 등 한국 고아원에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를 보내는데요. 2017년 첫 위드 뮤직 후원 콘서트를 시작으로 악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보낼 뿐 아니라 고아

원 학생들이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달 위드 뮤직 후원 연주회에 학생들이 참여해 연주를 선사해 큰 감동을 전하기도 했고요.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 크리스마스 CD를 보내서 찬양과 캐롤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축복 가운데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자리까지 모는 것을 계획하시고 사랑해주셨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합니다.

음악이기에 앞서 크리스천으로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오페라와 팝 스타일이 어우러진 대중 콘서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찬양을 전하려고 해요. 음악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후배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 찬양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저의 찬양과 간증을 원하는 교회가 있다면 찾아가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자 합니다.

공연 및 위드 뮤직 후원에 대한 문의는 withmusic.la@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정통 클래식에서 활동하시다 대중 제7회 위드뮤직 자선음악회에서 피아니스트 신창용과 협연하는 비올렛 심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사,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B.Th/B.A)

126학점

석사과정

(M.Div/M.A)

96학점

박사과정

(D.Min/Ph.D)

48학점

학생수시모집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누가 가장 성숙한 지혜자인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과정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발전과정”(developmental process)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신비롭게도 성장합니다. 세상은 무질서의 정도, 즉 “엔트로피”(entropy)가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이러한 자연법칙을 거슬러 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의하여 부여된 생명이라면, 틀림없이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완벽하여 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빌 2:12)는 말씀은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신앙을 일련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40년간을 경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이나 집단이나 성숙이라는 필연적인 차원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욥기”라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욥을 비롯하여 4명의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신앙의 발전과정에서 본다면 이들은 날카롭게 세 부류로 갈라집니다. 엘리바스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와 빌닷과 소발은 하나님에 의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과 용서를 통하여 회복됩니다. 그들은 “죄에 의한 고난”이라는 전제로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욥에게 위로는 커녕 욥을 괴롭게 하는 위로자입니다.

다른 세 친구 보다 낮지만 역시 욥의 경우에도 질책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의심합니다. 욥의 잘못을 신랄하게 나무라는 사람은 욥기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가장 젊었지만 가장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을 모두 질책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는 잘못을,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절대 주권과 깊은 섭리

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에 의하여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기 32-37장에 이르는 장대한 논지를 격류처럼 토해냅니다. 엘리후의 깊은 논지는 점차 38-41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논조와 유사해 집니다. 하나님은 엘리후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욥을 향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욥을 향한 질문과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변한 하나님의 편에 서있는 지혜자라는 사실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까지 세 친구를 향하여 격렬히 비판하던 욥은 젊은 지혜자 엘리후 앞에서 잠잠합니다.

다섯 명의 토론자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 얽매인 유아론(唯我論)적 신자인 욥의 세 친구, 욥과 같은 충실한 윤리적(倫理的) 차원의 신자, 그리고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의 논지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 중심의 신비적(神秘的) 차원에 이른 지혜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 성도들의 내면을 성숙시킵니다.

칭찬 잘하기

제가 비공식으로 아이큐 테스트를 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가 중학생을 위한 아이큐 테스트 용지를 집으로 가져오셔서 난생처음 아이큐 테스트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작성한 아이큐 테스트 용지를 학교에 가져가 저의 아이큐 결과를 알아 오셨는데, 어린 저의 눈에도 아버지는 굉장히 실망하신 눈치였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 주셨던 기억은 있지만 저도 저의 아이큐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 나쁜 아이들을 놀릴 때 아이큐가 두 자리 수라며 놀리곤 하는데, 바로 제가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위로를 삼는 것은 중학생 형님들을 위한 질문지로 초등학교 학생이 테스트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로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 왔지만, 지금도 확실히 아는 것은 저는 천재가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좀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여지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학창 시절을 지냈습니다. 어찌까지 판관이 놀다가 오늘 시험을 봐도 여전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친구들을 보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공부 한번 잘해봤으면 하는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욕심이 있었던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즈음에 처음으로 커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놀라셨던 지 저의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저의 성적이 올랐으며 칭찬을 늘어놓으셨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났다’ ‘못 믿겠다’ 등등. 믿지 못할 경사 아닌 경사가 난 것입니다. 저의 거짓 성적에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결국 저는 아버지께 이실직고를 했고 (지금 생각하면 아마도 담임 선생님과 아버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닝을 했다는 아들의 고백에 아버지는 다음 시험에 제대로 하면 된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커닝으로 받았던 성적을 유지하려고 평

균치 머리로 나름 꽤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만약 그때 커닝한 것을 뻔히 안 담임 선생님이 저를 퇴학시켰든지, 커닝한 아들을 버리지 취급하며 아버지가 모욕감을 주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뜬금없이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른 것은 ‘리더는 하루에 백 번 싸운다’의 저자 조우성 변호사가 말하는 칭찬의 원칙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소유보다는 재능을, 재능보다는 의지를 칭찬하라’는 그의 조언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예를 들면, ‘넉타이가 멋지네요’보다는 ‘색감이 탁월하시네요’가 더 잘하는 칭찬이며, ‘머리가 참 좋으시네요’보다는 ‘당신의 성실함에 도전받았습니다’가 더 좋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크면서 머리가 좋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애송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 평균 머리로 오늘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베델 성도님들에게 올해는 칭찬을 잘하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소유한 분들도 칭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도 잘 살피서 더 많이 칭찬하려는 새해 결심을 해 봅니다.

일상에서 내 몸을 드리는 헌신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한 번에 구원의 은혜가 다 깨달아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삶에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행함을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종 믿는 마음도 확실한 것 같고 믿음의 말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으로 보여 실망을 주거나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이단이 ‘가현설’(Docetism)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인데, 예수의 몸은 환상일 뿐이라는 교리로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몸을 입을 수 없다고 하면서 착시로 예수님의 몸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도 몸으로 증거 하지 않는다면 이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에 몸으로 나올 생각은 안하고 편한 곳에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몸으로 봉사는 안하고 웹 서비스로 다하고, 몸으로 선교는 안 하면서 엉뚱한데다가 몸을 드리는 신앙은 진짜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몸을 하나님께 드려 매일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나라와 왕조가 네 번씩 바뀌면서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데도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직장과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일상에서 몸의 헌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광강한 이념이나 사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이 화랑 청년이었을 때 천관녀라는 기생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생각하지 않음을 책망하자 마음을 정하고 안 간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천관녀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습관을 따르던 말이 그리로 온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린 다윗은 왕과 장수들도 두려워 떠는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평소 일상 속에서 아비의 양을 칠 때 물뿔들을 던져 사자와 곰을 이긴 것과 같이 하여 승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의 삶에 배어있는 몸의 습관이 마귀의 종이 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만들고 승리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몸의 헌신을 통해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해엄처 건너갈 큰 강이 되어 흐릅니다. 그 물이 사해까지 흘러가서 죽은 바다를 살려 놓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져서 어부가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헌신을 통해 예수 생명이 흘러 가정,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일상에서의 몸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0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성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를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맛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중금속
간수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Westmoreland
Virgil
Wilshire Blvd
Wilshire Pl

이음헵프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년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합성과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증상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적극신앙단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신흥우를 중심으로 일어난 적극신앙단 운동에 대해 여러 면에서 비판적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단죄의 소리는 신흥우가 몸담고 있던 감리교회에서 먼저 나왔다. 이 단체는 비밀 결사의 성격을 띠었으며, 자기들만이 애국적이고 진보적이며 이상적인 교계 지도자로 자처하였다.

기성교회와 기독교 기관은 절망적이고, 보수적이며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단원들을 서울 교회와 감리교회 연회, YMCA, 기독교서회, 성서 공회, 기독교신보, 기타 선교 기관에 침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가장 위험한 행동은 집회를 갖거나 운동을 할 때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흥사단 계열의 재경 기독교유지회(在京基督教有志會)가 1935년에 감리교회 연회와 장로교 총회에 이 신앙단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제출함으로써 이들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건의문에, 이 단체는 “근대주의 진흥을 꾀하는 곳으로, 미국에서 기금을 얻어다가 불순한 자유주의 신학의 서적을 출판할 계획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에 속한 인사들은 “총회가 이 교단 밖에 있는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인 간섭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여러 어느 기관에서의 간섭도 용인 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경성노회를 경유한 재경기독교유지회의 건의를 접수한 경성노회는, “적극 신앙단의 신앙노선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용납하지 안 키로 함이 가하다.” 하여 노골적으로 신앙단에 가입한 목사들을 겨냥하였다.

그러나 서울 교계의 유지들이었던 함태영, 최석주, 이석진 권영식 목사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보수적인 경성노회에서 탈퇴하고 경중노회를 조직하여 분립 해 나갔다. 그러나 경성노회는 경중노회를 불법 노회로 규정하고 여기가 답한 인사들은 제적시켰다.

이 문제는 보수적인 경향의 서북세력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호기지방의 반발이었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목회자 중심의 문제라기보다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의 분란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화살을 돌리려 했다.

총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별위원회를 조직하고 수습케 하였는데, 위원회는 “(경성노회의) 처리와 법칙에는 무위(無違)하나 사랑의 처리에는 원만치 못함”이라 규정했다. 김린서 목사는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고 눈물은 헌법을 초월하오”라 일갈했다. 그러나 반 서북 교계의 기치를 들고 나온 이들이 서북세력이 지배하는 총회의 결의에 순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총회의 분열로 진전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문제는 결국 1937년 서울 성공교회에서 모인 경성노회와 경중노회가 합석하여 총회의 제안에 피차 순종하기로 합의하고 함태영 목사의 사과를 받음으로 일단락 되어 현실적으론 해는 모면하였다.

감리교회는 그 해 4월에 모인 동, 서, 중부 연합연회에서 “적극단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헌법상 공(公)한 의회가 아니므로 차(此)를 부인한다.”는 결의와 “교적자는 총회가 승인치 아니한 단체에 가입치 말 사(事)”라고 결의하였을 때 이는 적극신앙단을 염두에 두고 한 결의였다.

적극신앙단이 이렇게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은 기성교회들의 제압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중심 인물들이었던 신흥우의 YMCA 총무직 사퇴였다. 1930년대 초부터 YMCA 내에서는 신흥우 총무의 사업 추진에 대한 찬, 반양론이 갈리며 갈등을 노정시켰는데, 이 때 신흥우가 이혼한 박인덕(朴仁德) 여사와 스캔들을 일으켜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신흥우가

YMCA 조직과 그 회원들을 상대로 이끌어 오던 적극단은 결국 그 중심 세력을 잃고 침몰하고 말았다.

적극신앙단 문제는 언젠가는 터져 나와야 하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 즉 한국교회 중심이 지나치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신앙의 폐쇄성이 개방을 향해 가는 시대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세력에 부딪친 연유였다. 또한 선교사 중심의 교회가 선교사들의 보호권 내지는 주도권 밖으로 나와야 하는 문제가 조금 일찍 터져 나왔을 뿐이다.

비록 적극신앙단이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감이 연합하여 한국교회의 고질적 문제점과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이 운동을 일으킨 저에게는 서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안창호의 흥사단(동우회)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저의가 짙게 깔려 있었다. 교세가 강한 서북 지방의 장로교회 세력을 꺾고자 하는 감리교회 신흥우 중심의 기호(畿湖) 지방 인사들의 모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순수성이 의심되고도 남음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적극신앙단에 적극 참여했던 인사들 대부분이 일제 말엽에 친일적 단체였던 ‘혁신교단’의 중요 인사들이었다는 사실에서 반 선교사는 곧 일제의 반교회(반 선교사) 정책과 맥이 통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이들의 반 서북적 경향은 해방 후 장로회 내의 서북 세력과 보수 신앙을 대변하는 박형룡(서북)에 반대하여 비서북,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경향을 띤 기독교장로회를 창설하는 인사들이 대개 적극 신앙단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역사는 순수한 복음적 동기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저의를 갖고 정치적인 색채를 띠게 되면, 그 표방하는 바가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은 그 뜻을 관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세 사가들의 준엄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동족선교칼럼

2020년은 정치복음화의 티핑포인트다



기도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2019년은 한국은 물론 주변 4대 나라에 강풍이 몰아친 한 해였다.

그 강풍이 2020년 새해에는 어떻게 변할런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섭리를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모두 선교적 미션이라는 거룩한 순명으로 시작된 나라들이다. 200여년 미국은 정치의 복음화라는 틀을 헌법과 사회적 가치에 골격을 이루어 왔으나, 70년의 한국은 여전히 치열한 과정에 있다.

한국의 경우 2020년은 더 큰 격동이 몰아칠 것이다. 6.25사변 70년이 되는 해다. 한국민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혹독한 시련에 변영이라는 선물을 체득은 했지만, 여전히 자유와 민주, 협의라는 가치의 체득은 온전하게 학습하지 못했다.

이제 그 시련대가 확실하게 도달한 시점이다. 국민이 스스로 가치를 체득하여 현실에서 실현시키지 못한 그 대가를 치르던지, 아니면 제대로 배워서 우리의 것으로 할지 그 티핑포인트가 지켜만 보던 국민들에게 이제 4.15총선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영역은 온 우주이며, 그의 통치는 모든 분야이다. 정치도 예외일 수 없다.

정교분리는 교활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의 구하다. 선거 때, 후보자들은 다니지도 않는 교회를 늘 찾

아와서 굽신거리지 않는가! 성도들에게 투표권이 없는가?

선교는 굶주린 북한 동족 어린이부터 통치자나 권력을 가진 그 모두가 대상이다.

선교는 물질적인 구제를 넘어 정신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이다.

새해는 정치와 사회의 복음화가 이제 더 실질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이 복음화가 되면, 그 감화력은 굶주린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고, 핵무기를 포함한 무리하게 만든 법제도까지 내려 놓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시점, 특별히 티핑 포인트를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갈 4:4)” 라고 표현했다.

2019년, 정치 때문에 너무나 백성들이 힘들고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2020년 새해는 선교한국, 복음통일의 티핑 포인트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때가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하성도들과 탈북민들의 피눈물은 물론, 평양의 측근들의 불탄과 원성이 하늘에 차고 있기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전도사), 주선배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종필목사(예수전도사), 송정영목사(복음선교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중앙리교회), 신장민목사(복음선교대 대표), 유관지목사(새생명포럼대표), 김인식목사(A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지자
*명의 책은 어떤 책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순원 박은 그를 읽었지만 읽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공언으로 기독교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영감을 얻었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책코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도온동족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를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LEE MAN GEEP)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WHEN WE PRAY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TOPMEDIAUSA Custom Marketing Solutions For Your Business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디자인/인쇄/제작/배송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작성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뻣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배배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토 10시~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기다림과 진국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 허락하시는 이유



침묵이라는 무기
코르넬리아 토프 | 장혜경 역
가나출판사 | 272쪽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 더욱 빛을 발하는 침묵의 품격 당신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당장 그 입을 다물기만 한다면...

스스로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지적으로 보인다.

대화할 때마다 자랑질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매번 상대방을 지적하며 가르치려 드는 사람도 있다.

지적인 사람들도 그런 충동을 느끼지만, 그 충동을 좇지 않는다. 유혹을 이기고 자제할 줄 안다.

그러자면 엄청난 지성이 필요하다. 지성이 있어야만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기다리면 깊어진다.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국은 미역국이다. 미역국은 오래 끓일수록 맛이 살아난다. 맛있는 미역국을 먹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스턴트 음식만 먹어야 한다.

인간관계에도 기다림은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 준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기다려 준다. 스승은 제자를 기다려 준다. 그래서 깊어진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는 만남은 인스턴트식 만남만 할 뿐이다. 기다림 속에서 만남의 열매는 익어간다. 기다리는 사람이 맛있는 국도 만남의 열매도 맛볼 수 있다. 기다릴 때 깊어지기 때문이다.

맛과 만남에도 깊은 것이 있듯이, 대화에도 깊은 대화와 얕은 대화가 있다. 깊은 대화는 오랫동안 생각이나고 여운이 남는다. 그러나 얕은 대화는 아무리 많은 말을 했어도 지나고 나면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는 말의 홍수에서 살고 있다. 쉬지 않고 떠들지만, 정작 필요한 말은 거의 없는 시대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작가 한스 카로사는 이렇게 말했다. “잘 알면 세 마디로 족하다. 잘 모르니 서른 마디가 필요한 법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말의 무게가 있다. 침묵은 언어의 또 다른 표현이다.

〈침묵이라는 무기〉는 말이 넘쳐나는 시대에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법을 알려준다. 책의 저자는 코르넬리아 토프로, 독일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다. 저자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침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일단 말하고 나서 후회한다. 귀로 들리는 것만 효력이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말을 할수록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침묵은 인간에게 힘을 주는 최고의 원천이다. 책은 침묵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크게 9장으로 설명한다.

1장, 말 비우기 연습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걱정만 털어놓고 잘난 척만 하려 한다. 대화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 입을 다무는 것은 지식이나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의 일종이다.

2장, 침묵하면 달라지는 것들

침묵은 이해와 동의를 표하는 강력한 방식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아 보인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3장, 우리는 모두 ‘관중’ 이다

말하는 자가 통제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점점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관중’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주의가 날로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별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말을 하면 들을 수 없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말을 배우는 데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고 말했다.

4장, 비울수록 커지는 말의 무게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오로지 방 안에 조용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 입을 닫고 모든 소음의 원천을 끄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묵소리가 들려온다. 마음과의 대화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참 어렵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자신과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조차 이해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 자신의 욕구를 발견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부여가 되어야,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5장, “말을 해야 해”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려야 한다. 난감하게 느껴지는 침묵의 순간이 찾아와도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동적인 사람들만이 침묵을 난감하게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세상과 대화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침묵을 전혀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

6장, 대화를 유리하게 이끄는 상황별 침묵 사용법

침묵은 협상 상대를 불안하게 만든다. 욕망이 강하고 시간이 촉박할 때,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마음이 불안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맛있는 과일을 먹고 싶다면, ‘적당한 양’의 비료를 주어야 한다. 말도 마찬가지다. 말과 침묵의 비율은 각각 1:3이 좋다. 침묵이 말보다 3배 더 길어야 한다. 입을 다물어야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파악할 수 있다.

7장,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별 침묵 사용법

학자들의 조사 결과, 너무 빠빠한 뉴스는 사람들의 기억에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한다. 하던 말을 멈추고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

이해와 공감과 동의는 말에 이은 침묵에서 더 많이 생겨난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침표가 있을 때마다, 정확히 말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말을 멈출 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8장,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 침묵할 권리

소음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소음의 생산자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책임질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소음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중히 부탁하거나 비언어적 제스처로 상대방에게 불만의 신호를 보내야 한다. 소음을 참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 상대가 말을 끊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욕구가 만족되면 알아서 입을 다문다.

9장,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한 침묵의 힘

일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깊게

호흡하고 침묵하고, 조용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개운해지고 기운이 돌아오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묵하다. 이런 지혜는 꼭 나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지혜의 힘은 소란함이 아니라 고요에서 온다. 소음이 없어야만 고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요는 행동을 멈추고 주변을 온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침묵과 고요를 만나 해서 세상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삶의 균형을 위해 짧은 순간이라도 침묵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종일 TV를 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스마트폰은 단 한 시간조차 끄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소음이 아니라 침묵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맛을 내는 음식과 만남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기다릴 때 진정한 자신의 맛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무언가 말하지만,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 인내의 순간일 수 있다. 그런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익어간다. 점점 깊어진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농부에게 침묵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침묵은 우리 인생을 맛있게 익어가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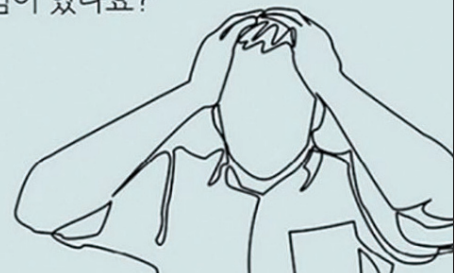
침묵을 잘 사용할 때, 인스턴트 인생이 아니라 진국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맛있고 깊은 인생이 된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아, 괜히 그런 말을 했네. 참을 걸.”

사람들과 헤어지고 집에 오면서 이런 후회를 한 경험이 있나요?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원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LA지역 제2차

일시 : 2020년 1월 20일(월) 오전 9시 ~ 오후 6시
21일(화) 오전 9시 ~ 오후 6시

장소 : 한길교회 (담임 박찬섭 목사)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회비 : \$50

등록 및 문의 : T.(213)739-0403, (213)718-1512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원고작성 비법 공개

초청의 말씀

설교에 변화를 원하는가?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포인트로 흘러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설교를 해보지 않겠는가? 기존의 설교 세미나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 되는,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엑기스 한 덩어리를 캐내어 참신하고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설교의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비결을 공개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구약을 전공(Th.M)하고 남아공에서 수사기법(효과적인 절달)을 전공(Ph.D)하고,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프레임>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신성욱 교수의 놓칠 수 없는 독보적인 세미나에 설교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신성욱 교수

강사 소개

신 교수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구약 석사 과정(Th.M)을 수료한 뒤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 석사학위(Th.M)를 받은 뒤 University of Pretoria 대학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 등 다수의 저서와 역서가 있다. 현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그는 그간 국내외적으로 많은 설교세미나를 인도해 온 경험이 있다. 특히 그는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를 창안하여 <목회와 신학> 및 세미나를 통해 계속 공개하고 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 교회 원로)의 추천사

"신성욱 교수님은 보기 드문 설교학자이십니다. 이론과 실재를 구비하고 신구약과 수사기법을 장착한 이분에게는 촌철살인의 유머와 깊이 있는 말씀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한국강단의 문제를 극복할 설교의 대안을 찾는 후학들에게 신 교수님의 설교세미나를 강추합니다."

설교세미나 1차 집중강의 계획

일시	시간	내용
1월 20일(월)	오전 9시 ~ 오후 6시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29가지 수사기법, 7단계 석의 및 설교작성법 샘플 소개(막5:21~43)
1월 21일(화)	오전 9시 ~ 오후 6시	독창적 설교예와 수집 및 저장 방법, 설교개요 작성 실습1(창4:1~5a),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문 샘플 소개 1, 설교개요 작성 실습2(요6:1~15),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 설교문 샘플 소개

*ACTS in USA 프로그램 소개 : 미국 학위로 D.Min & Ph.D in preaching 두 과정을 개설함. 본강의를 수강한 이에게는 3학점 1과목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최: 기독교일보 후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